



Xi story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이스토리

낯선 작품 해석 능력을 키우는
3단계 독해 공식

고등 국어
문학 독해

기본

5 문학 실전 모의고사 [2회]

-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15문항씩 구성된 문학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 제한 시간에 따라 문제를 풀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DAY 17 문학 실전 모의고사 [1회] • 문항 수: 15문항 • 제한 시간: 20분 • 소요 시간: 10분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차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표현이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괴 되니 차라리 몸을 갖잡기게 하여 형체 온전히 힘이 상쾌이라.' 하고 즉시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으매 그 성명을 지녀 돌아가 의복을 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혼서와 옥기 내어 몸에 꿰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 몸을 수중에 던지 공중에서 황룡이 내려와 소지를 태워 공중으로 오르니,

6 어휘+개념어 총정리

- DAY별 필수 어휘와 개념어를 총정리했습니다.
-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음과 뜻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휘+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표시

1 **가계** 家 計 가 세 이음 **계**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집안의 계통
예 그의 **가계**는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의 집안이다.

가림 隔 斷 가 끊 가림 **범**
세금 따위를 가축하게 거두어들이.

경계 疆 界 경 손할 경 **비** **히**하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다.
예 그의 **경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경박 輕 薄 가벼울 경 **얇** **박**하다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예 요란한 지장이 다소 **경박**해 보인다.

경부 敬 服 경개할 경 **복** **부**기
예 **경부**한 정복을 입고서 **경부**하다

관철 貫 徹 관 뚫 관 **통** **철**되다
아래로도 꿰이지 않고 목적이 기어아 이루어지다.
예 우리들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되다

활시 活 氣 활 **생** **활** **분** **사**하다
인신여겨 하얗게 대하다.
예 사람을 이렇게 **활시**해도 되는 겁이 없다

7 친절하고 자세한 입체 첨삭 해설

시

1 화자, 중심 대상
시의 화자, 중심 대상에 표시했습니다.

2 상황, 정서, 태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비롯해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3 표현상 특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내용 요약**
각 연의 내용을 요약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해 공식
갈래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작품 설명
문학 작품의 갈래, 글쓴이,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주제, 창작 시기, 이것이 핵심 등 제시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시 해설
시의 내용을 쉽게 풀이했습니다.

DAY 04 [고전 시가]
2024 실시 3월 혁명 31-33 (고2)

[01~04]
* **이휘일, <전기팔곡>**
출제 1 화자, 중심 대상 2 상황, 정서, 태도 3 표현상 특징 [시해설]

1. **화자를 가리키는 문** **전원** '세상(속세)'과 대비되는 공간
제장터 '고된 몸'이 **환이**의 놀거 가니
2. **상황** '세상(속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늙어 가고 있음.
→ 세상에 버려진 몸이 발아래에서 늙어 가니

3. **주체의 일** 1 화자
바깥집 내 모란고 숲은 **일 무스 일인고**
4. **표현법**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표현법
→ 바깥 일은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은 또 무슨 일인가

나를 걱정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1 중심 대상: 해마다는 봄엔
2 이 **중의 우국성심은 단풍을 흰 눈 노라**
3 정서: 나라를 걱정하며 흉년을 걱하는 화자의 조망
* (나) 요약: 임(임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1 (가) 독해 공식 정답
2 화자: 드러내지 않음. 중심 대상: 백로
3 상황: 백로에게 말을 건넌.
정서, 태도: 길과 속이 다른 백로를 비판함.

4 **표현상 특징**
•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동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4음보의 율격과 설의 격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5 **갈래** 한시
6 **글쓴이**: 이색 (1328~1396). 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자 은둔하였다.
7 **제목의 의미**: '둘 부(序)' + '우를 백(白)' + '누각 루(樓)', 평양 모란대 밑 절벽, 대동강변에 위치한 누각.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8 **이 작품은?** 고려 말의 문인이었던 작가가 고려의 옛 도읍지인 평양의 북벽루에서 느낀 정서를 담은 5언 율시의 한시이다.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오랜 침략을 겪고 국가의 힘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작가는 자주적인 민족 국가로 큰 위세를 떨쳤던 고려를 떠올리며 고려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9 **주제**: 지난 역사의 회고와 인간사의 무상함
10 **이것이 핵심!**: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

11 **문제 어휘+개념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어휘 및 개념어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12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처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13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14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설

1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2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3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문제 유형 분석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 선택
학생들이 헛갈렸던 선지를 밝혀 주기위하여 선지별 선택물을 수록했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06~10 2025 실시 9월 혁명 34-37 (고1)

* 이동하, <파편>
출제 1 중심인물, 배경 2 중심 사건, 갈등 3 서술상 특징

1.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 2.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3. **그날**의 **시각** 1인칭 주인공 시점
4. **갑작스런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5.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었던**

6. **나와** **심혼을 포획**한 가족의 과거
7. **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終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8. **이제** **내가** **한 세계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여 특정 연도의 이유를 드러낸** **상사** **지를** 것은 한 사내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둠과**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사코 **담을** 쌓고 은혜를 왔던 그 세계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 보일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9. **나**가 **심혼의 정복**에 **이와**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10. **나**가 **심혼의 정복**에 **이와**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03 정답 2 *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률 63%]
[1] 59% [2] 4% [3] 26% [4] 7% [5] 1%

(다)의 [A]~[D]에 대해 강하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로, 고고한, 고고한, 고고한

20. **틀렸나?**
선제의 설명이 적절하더라도 그것이 (가), (나), (다) 중 무어에 대한 설명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21. **단서+발상**
22. (다)에서 화자는 백로는 루고기와 새우를 탐내다 기뻐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백로의 마음을 이른 채 백로가 기쁨을 잃고 서 있다고 말한다. 23. (다)의 화자는 백로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이끌어 내어차라리 못하고 백로를 예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4. **왜 정답?**
25. (다)의 **사람들이 백로에 대해 보이는 인식은 [A]에 드러난** 백로의 모습에 근거하고 **옳**다.
* 근거: 1. 2. 3.
"나는 자신과 똑같이 생각했지만 자신이 아닌 그것을 보면서, 사람으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물건으로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계동은) 정답: 일의 진행이나 상황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다.

26. **왜 오답?**
27. (가)와 (다)는 **어순을 도치하여**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가 **심혼의 정복**에 **이와**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이 책의 차례

I 시

[현대시]

DAY 01 · 고운 심장 (신석정), 스승의 구두 (허수경) 10
 + 지문 분석 특강 12
 + 문제 풀이 특강 13
 · 향수 (장만영), 마음의 태양 (조지훈) 14

DAY 02 · 향문 (조지훈), 두꺼비 (박성우) 16
 · 해바라기 씨 (정지용), 낙타 (신경림) 18

DAY 03 · 현 위의 인생 (정끝별),
 뿌리로부터 (나희덕) 20
 · 소년 (윤동주), 나무의 꿈 (손택수) 22
 + 문학 개념어 특강 ① 24

[고전 시가]

DAY 04 · 전기팔곡 (이휘일) 28
 + 지문 분석 특강 30
 + 문제 풀이 특강 31
 · 어부사시사 (윤선도),
 초당춘수곡 (남석하) 32

DAY 05 · 훈민가 (정철), 복선화음록 (작자 미상) 34
 · 고시 (정약용),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36
 + 문학 개념어 특강 ② 38

[시 복합]

DAY 06 · 시의 대상, 필라멘트 (이동순),
 마지막 느낌보-산책시 3 (이문제) 42
 + 지문 분석 특강 44
 + 문제 풀이 특강 45
 · 자연 현상의 이미지화, 처서기 (박성룡),
 성숙 (고재종) 46

DAY 07 · 뎛동어미화전가 (작자 미상), 자경 (박인로),
 효애오잠 (박세당) 48
 · 수남방옹가 (정훈), 천정기 (신흠) 51

DAY 08 · 민농가 (정해정), 박장대 (유희) 54
 · 강호사시가 (맹사성), 상춘곡 (정극인),
 입춘 (백석) 57
 + 문학 개념어 특강 ③ 60

II 소설 · 극 문학

[현대 소설]

DAY 09 · 도깨비 잔치 (송기숙) 66
 + 지문 분석 특강 68
 + 문제 풀이 특강 69
 · 파편 (이동하) 70

DAY 10 · 서글픈 순방 (박완서) 72
 · 먼 바다 (공선옥) 75

DAY 11 ·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문순태) 78
 · 메아리 (오영수) 81
 + 문학 개념어 특강 ④ 84

[고전 소설]

DAY 12 · 김학공전 (작자 미상) 88
 + 지문 분석 특강 90
 + 문제 풀이 특강 91
 · 쌍주기연 (작자 미상) 92

DAY 13 · 흥계월전 (작자 미상) 94
 · 옥란전 (작자 미상) 97

DAY 14 · 세경본풀이 (작자 미상) 100
 · 이생규장전 (김시습) 103
 + 문학 개념어 특강 ⑤ 106

[극 문학]

DAY 15 · 그게 아닌데 (이미경) 110
 + 지문 분석 특강 112
 + 문제 풀이 특강 113
 · 전하 (신명순) 114

DAY 16 · 대장금 (김영현 각본) 116
 · 말아톤 (정윤철, 윤진호, 송예진 각본) 118
 + 문학 개념어 특강 ⑥ 120

III 문학 실전 모의고사

DAY 17 1회 모의고사 [15문항] 126

- 하진양문록 (작자 미상)
- 탐라별곡 (정언유), 안화설 (채제공)
- 213호 주택 (김광식)
- 시에서의 전형적 인물,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못 위의 잠 (나희덕)

DAY 19 2회 모의고사 [15문항] 134

- 백봉선전 (작자 미상)
- 만흥 (윤선도), 전간대 (홍석주)
- 론도 (성석제)
- 수라 (백석), 까치밥 (송수권), 시적 공간의 의미

* 어휘+개념어 총정리 142

* 지문 분석 특강 정답 152

*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정답 152



문학 개념어 특강

I 시

- ① 비유와 상징, 정서 표현, 이미지(심상) 24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26
- ② 강조, 변화 38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40
- ③ 시의 전개 방식과 운율 60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62

II 소설·극 문학

- ④ 소설의 서술 방식 84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86
- ⑤ 소설의 전개와 구성 방식 106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108
- ⑥ 문장의 표현 방식 120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122



[현대시]

정형시의 율격을 벗어난 자유로운 운율과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시로, 1910년대 이후부터 지어진 시를 통틀어 현대시라고 한다.

[고전 시가]

상고시대의 고대 가요부터 조선시대의 시조에 이르기까지 개화기 이전 우리나라의 시와 노래를 통틀어 고전 시가라고 한다.

[시 복합]

시와 수필 등 서로 다른 갈래의 작품이 함께 묶여 출제되거나, 시와 제시문이 함께 출제되는 것을 시 복합이라고 한다.

* 수필: 글쓴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나 체험한 것을 자유롭게 쓴 글

오 나의 비너스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무지개가 몽글몽글 피어나고
너를 보면 내 눈에서
솜사탕이 뱅글뱅글 솟아나고
너를 안으면 내 가슴에
화산이 폭발해
이 세상 모든 설렘을 다 모아도
너 하나만큼은 못할 거야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지네
심장은 북처럼 쿵쿵 울리네
너를 생각하면!

- 화자: '나', '내'
- 중심 대상: '너'
- 상황: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
- 정서, 태도: '너'를 보면 설레는 마음과 '너'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표현하고 있음.
- 표현상 특징-은유법: 사랑하는 사람인 '너'를 '비너스'라고 표현함.
- 표현상 특징-음성 상징어 사용: '너'를 볼 때의 황홀한 감정을 솜사탕이 뱅글뱅글 솟아난다고 표현함.
- 표현상 특징-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운율을 형성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함.

I 시 詩

🌸 ‘시’를 독해하는 방법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나’, ‘우리’, ...)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즉 화자를 찾으면 시인의 생각인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심 대상:**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중심 대상이 무엇인지 찾으면 시의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화자의 상황, 정서·태도 파악하기

- **상황:** 시 속에서 화자가 놓여 있는 환경
시인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자 시 속 상황을 정합니다.
- **정서:** 화자가 중심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 **태도:**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서에 대해 보이는 어떠한 자세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면 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표현상 특징:** 시인이 시를 쓸 때 사용하는 직유법, 은유법 등의 표현 방법
시인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일수록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면 시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강조하여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시 복합’을 독해하는 방법

1) 작품별 갈래 확인하기

갈래 복합에서는 작품이나 제시문이 (가)와 (나) 혹은 (가)~(다)로 묶여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어떤 갈래의 작품이 묶여 출제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 읽기

각 작품의 갈래를 확인한 후,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을 읽습니다.

- *수필: ① 중심 대상 찾기, ②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③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제시문: ① 내용 정리

[현대시]

Day 01 고운 심정 (신석정), 스승의 구두 (허수경)

+지문 분석 특강, +문제 풀이 특강

향수 (장만영), 마음의 태양 (조지훈)

Day 02 향문 (조지훈), 두꺼비 (박성우)

해바라기 씨 (정지용), 낙타 (신경림)

Day 03 현 위의 인생 (정끝별), 뿌리로부터 (나희덕)

소년 (윤동주), 나무의 꿈 (손택수)

+문학 개념어 특강 ①, +확인 문제

[고전 시가]

Day 04 전기팔곡 (이휘일)

+지문 분석 특강, +문제 풀이 특강

어부사시사 (윤선도), 초당춘수곡 (남석하)

Day 05 훈민가 (정철), 복선화음록 (작자 미상)

고시 (정약용),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문학 개념어 특강 ②, +확인 문제

[시 복합]

Day 06 시의 대상, 필라멘트 (이동순),

마지막 느낌보-산책시 3 (이문재)

+지문 분석 특강, +문제 풀이 특강

자연 현상의 이미지화, 처서기 (박성룡),

성숙 (고재중)

Day 07 덴동어미화전가 (작자 미상), 자경 (박인로),

효애오잠 (박세당)

수남방응가 (정훈), 천정기 (신흥)

Day 08 민농가 (정해정), 박장대 (유희)

강호사시가 (맹사성), 상춘곡 (정극인),

입춘 (백석)

+문학 개념어 특강 ③, +확인 문제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별도

하늘도
밤도
치웁다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 별이 ㉢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오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라구……

- 신석정, <고운 심장>

(나) 구두는 ㉣ 설 새 없이 날아가고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이십 년은 ㉤ 족히 넘은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앉고

스승은 넥타이를 풀다

새로 산 책을 넘긴다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과

인권론과 형평론을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눈을 부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승은 날아가고

구두는 현관에서 날아가지만

내일도 장대동 중앙시장

새로 선 상가를 지나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이 날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은 더 먼저 날아갈 것인가

- 허수경, <스승의 구두>

01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미래의 문제 상황을 예측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난류'가 '얼어붙은 심장'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스승'이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쇠퇴해 가는 주변 사물들에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현실을 서러워하지 않는 '너'를, (나)의 화자는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 '구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02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2025 실시 10월 학평 43 (고2)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2025 실시 10월 학평 44 (고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심장 밑'에서 '흐르던' '난류'의 미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은 '하늘'이 '별'로 인해 '얼어붙'은 정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③ ㉢은 '푸른 별'이 남김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구두'가 '납아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은 '스승의 서재'가 충분히 오래된 공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04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2025 실시 10월 학평 45 (고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는 일제 강점기를, (나)는 산업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시로, 현실과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한다는 것에서 시대적 현실로 인한 절망적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너'가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다는 것에서 생명력을 지닌 대상을 통해 냉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희망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장대동 중앙시장'에 '하룻밤새 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스승'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에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라구'라는 것에서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염원을, (나)에서 '새로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낱아갈 것인가'라는 것에서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화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겠군.

* 어휘 풀이

(가)

- 치웁다: '출다'의 방언
- 난류: 적도 부근의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나)

- 수용하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1st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 **제목:** (가)는 <고운 심장>이고, (나)는 <스승의 구두>이다. 이를 통해 (가)와 (나)는 각각 '고운 심장'과 '스승의 구두'가 상징하는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04번 <보기> 분석**
- **(가):**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냄.
- **(나):** 산업화 시기의 급변하는 현실 → 특정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며 현실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냄.

★ 현대시 독해 공식

-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서:** '좋다',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 · 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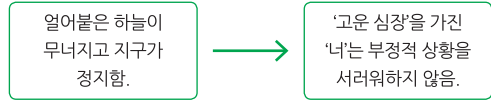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시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본다.

2nd (가)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가)에서는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가)의 화자는 온 세상이 얼어붙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고운 심장'을 가지고 있기에 서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의 중심 대상은 (1) _____ 이다.
-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가)의 화자는 모든 것이 얼어붙어 정지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가 지닌 '고운 심장'을 생각하고 있다.
 - **정서, 태도:** (가)의 화자는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나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2) _____ 을/를 가지며, 부정적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별', '하늘', '밤' 등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서로 대비되는 축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지구가 정지하는 극단적 상황 설정과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영탄법을 활용해 대상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확신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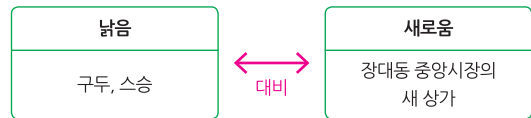
(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하고 억압된 현실을 온 세상이 얼어붙어 지구가 정지하는 종말의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3) _____ 와/과 희망을 '고운 심장'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현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이다.

3rd (나)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나)에서도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와 그 속에서 구두처럼 매일같이 남아가는 스승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중심 대상은 (4) _____ 이다.
-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나)의 화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며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스승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 있다.
 - **정서, 태도:** 남아가지만 새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 스승과 스승이나 구두보다 훨씬 더 먼저 남아갈지도 모르는 새로운 모습을 대비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5) _____ 하고 있다.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구두', '스승' 등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낯음과 새로움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장대동 중앙시장'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스승을 '낯은 구두'에 비유하며 대상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스승과 새로운 모습 중 무엇이 더 먼저 남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나)는 낯 새 없이 남아가지만 결코 새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 즉 본질적 가치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스승'과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더 먼저 남아갈지도 모르는 '새 상가'를 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6) _____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급변하는 사회 속 변하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성찰'이다.

01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가)와 (나)를 읽으며 각각의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드러난 구절에 주목한다.

- ① (가)의 화자는 극한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미래의 문제 상황을 예측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서 '난류'가 '얼어붙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나)의 화자가 '스승'이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구두', '스승'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남아가는 대상들이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이들을 안쓰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의 화자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서러울 리 없다고 하는 '너'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스승'을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 '낡은 구두'에 비유하며, 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① 3% ② 76% ③ 6% ④ 5% ⑤ 7%]

'모두', '달리' 등의 표현에 주목하여 (가)와 (나) 중 어떤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관해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 ① (가)와 (나) 모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별', '하늘', '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모든 것이 얼어붙은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구두', '스승', '상가'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남아가는 구두, 스승과 달리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대비하는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가 아니라 (나)의 '훨씬은 더 먼저 남아갈 것인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진정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가 아니라 (가)의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⑤ (나)가 아니라 (가)의 '오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에서 청자인 '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03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① 6% ② 83% ③ 5% ④ 3% ⑤ 1%]

㉠~㉣을 포함해 그 앞뒤 구절까지 모두 확인하고,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 ① ㉠ '가는'은 '난류'를 수식하며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난류가 아주 미약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② ㉡ '지치도록'은 '고요한'을 수식하며 얼어붙은 '하늘'의 정적인 상태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때 '하늘'이 '별' 때문에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 ③ ㉢ '모조리'는 '떨어질지라도'를 수식하며 '푸른 별'이 남김없이 모두 떨어지는 극단적 상황을 나타낸다.
- ④ ㉣ '실 새 없이'는 '남아가고'를 수식하며 구두가 남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죽히'는 '넘은'을 수식하며 스승의 서재가 이십 년이 넘을 만큼 충분히 오래된 공간임을 강조한다.

04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가)와 (나) 감상하기

[① 2% ② 3% ③ 3% ④ 70% ⑤ 19%]

*<보기> 분석

	(가)	(나)
공통점	현실과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차이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부정적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냄.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냄.

- ① <보기>에서 (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시라고 했다. 따라서 (가)의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는 극한 상황은 시대적 현실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가)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고 했다. (가)에서 '아직 고운 심장을 지닌 너'는 생명력을 지닌 대상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희망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시라고 했다. 따라서 (나)의 '장대동 중앙시장'에 '하룻밤새 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남아가는 스승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승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보기>에서 (가)는 현실 변화에 대한 염원을, (나)는 현실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고 했다. 따라서 (가)의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라구'에서는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기 기대하는 화자의 염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 훨씬은 더 먼저 남아갈 것인가'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결국 변화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특강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 파악하기
- ② 작품에서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와 관련된 부분 찾기
- ③ 작품과 선택지를 연관 지어 파악하기



1. 시의 표현 방법 - 비유와 상징, 정서 표현, 이미지(심상)

I 시

문학 개념어 특강

01 비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직유법 & 은유법

• 직유법: '~처럼, ~같이, ~듯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적으로 빗대는 방법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 엇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 정극인, <상춘곡>
직유법

•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A는 B이다'의 형태로 마치 두 대상이 같은 것처럼 나타내는 방법. 'A의 B'로 나타나거나, 'A인 B'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 정지용, <고향>
원관념 보조 관념

1 원관념과 보조 관념

- 원관념: 시인이 본래 표현하고 드러내려는 대상
- 보조 관념: 원관념을 효과적으로 빗대기 위해 사용한 대상
- 예 보석처럼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
보조 관념 원관념

의인법 & 활유법

•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활유법: 무생물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의인법 활유법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 이육사, <광야>

'산맥'에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여 '바다를 연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무생물인 '산맥'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휘달린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참고 한자어 풀이

- 의인법[擬 擬 헤아릴의 人 사람인 法 법법]
- 활유법[活 活 살 활 喻 깨우칠 유 法 법법]

02 상징: 구체적인 대상이 원래의 뜻을 지니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를 암시하도록 하는 것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고려의 유신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홍 세력(이성계 일파)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 이색
서서히 세력이 약해지는 고려 왕조



• 자주 쓰이는 상징적 시어와 의미

1.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시어

강호	강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자연
매화, 국화	추운 계절에 피는 꽃이라는 특성 → 지조, 절개
소나무, 대나무	항상 곧고 푸르다는 특성 → 충정, 절개, 지조, 선비 정신
하늘, 별	높은 곳에 있다는 특성 → 희망, 이상, 포부, 소망
해, 달	높은 곳에 있으며 유일하다는 특성 → 희망, 이상, 임금
바위	변함이 없다는 특성 → 굳은 의지, 불변



2.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시어

구름, 바람	모양이 자주 변하고 떠돈다는 특성 → 시련, 변절, 간신배
눈, 서리	차갑다는 특성 → 시련
까마귀	모습이 검고, 불길한 징조를 가져온다는 특성 → 변절, 간신배
어둠	어둡다는 특성 → 부정적인 상황
흥진	수레와 말이 일으키는 먼지라는 뜻 → 현실 세계, 속세(자연과 대조됨.)

01 비유

[01~04]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고르거나 쓰시오.

들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詩)의 가슴에 살포시 짓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들담에 속삭이는 햇발>

- 01 윗글에서는 ‘내 마음’을 ‘햇발’, ‘샘물’, ‘부끄럼’, ‘물결’에 비유하는 (은유법 /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02 ‘내 마음’은 (원관념 / 보조 관념)이고, ‘햇발’, ‘샘물’, ‘부끄럼’, ‘물결’은 (원관념 / 보조 관념)이다.
- 03 윗글에서는 ‘햇발’과 ‘샘물’에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이 활용되었다.
- 04 윗글에서 화자가 우러르고, 바라보고 싶어 하는 ()은/는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다.

02 상징

[05~06] 다음 글과 <보기>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A] 하늘 가운데 떠 있어 마음대로 다니면서
 [A]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구나
 - 이준오

<보기>

윗글은 고려의 승려 신돈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햇빛’은 임금의 총명을, ‘구름’은 신돈과 같은 간신을 상징한다.

- 05 [A]는 고려의 승려 신돈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횡포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06 윗글에서 ‘구름’과 ‘햇빛’은 원래 가진 뜻이 아니라 다른 추상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07~10]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찾아 쓰시오.

국화가 너는 어이 삼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낙목한천(落木寒天):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 또는 그런 계절
 * 오상고절(傲霜孤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

- 07 ()은/는 추운 계절에 피는 꽃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 08 ()은/는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을 의미한다.
- 09 ()은/는 국화가 피어나는 계절로,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한다.
- 10 ㉠은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으로, ()을/를 가리킨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 권호문, <한거십팔곡>

- 11 ㉠은 강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벼슬 / 자연)을 상징한다.
- 12 ㉡은 (강호 / 속세)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자연 현상은 이미지화되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한다. 자연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현상을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때 자연 현상의 이미지들은 시적 장면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되거나 대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나) ㉡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이젠
 마치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걷히듯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보다.

역시 나는 자정을 넘어
 이 새벽의 나른한 시간까지는
 고단한 꿈길을 참고 견뎌야만
 처음으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라도 듣게 되나보다.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어떤 것은 재깍재깍 녹슨 가윗소리로,
 어떤 것은 또 얽은 거미줄이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시늉으로
 들리게 마련이지만,
 그것들은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루기도 했다.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나는 아직은 깨어 있다가
 저 우레소리가 산맥을 넘고, 설레이는 벌레소리가
 강으로라도, 바다로라도, 다 흐르고 말면
 그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그 가을의 아침에 비로소
 나는 잠이 들겠다. - 박성룡, <처서기>

* 처서: 24절기의 하나.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시기

(다) 바람의 따뜻한 혀가
 사알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날 듯
 온통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

바람의 싸늘한 손이
 씩 씩잉, 싸대기를 후리자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둑후둑둑 굵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나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

- 고재중, <성숙>

* 갱변: '강변'의 방언

(가) ① 내용 정리 ❖ 정답: 해설 2P

- 요약
 -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 자연 현상을 추상적 1 이/가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함.
 - ➡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기여함.

(나)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내용 정리

- 화자: 2 중심 대상: 3
- [1연] 처서 가까운 밤에 우레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낌.
- [2연] 깊은 밤 벌레 울음소리를 통해 4 의 도래를 예감함.
- [3연] 벌레소리에서 서늘하고 맑은 가을의 기운을 느낌.
- [4연] 여름이 지나고 찾아올 가을 5 을/를 기다림.
- [5연] 가을 아침과 함께 맞이할 안식을 바람.

(다)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내용 정리

- 화자: 6 중심 대상: 7
- [1연] 따뜻한 바람이 불자 미루나무 이파리들이 보석처럼 반짝거림.
- [2연] 차가운 바람이 불자 미루나무 이파리들이 눈물방울처럼 8 (으)로 떨어짐.
- [3연] 기쁨과 고통을 겪으며 미루나무가 성장함.
- [4연] 9 을/를 이겨내고 미루나무가 성숙함.

05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화자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은 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 ③ (다)의 화자는 바람이 강변의 미루나무에 미치는 대조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는 높이 솟고 몸집을 키운 미루나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느낀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6 ③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2025 실시 10월 학평 43(고1)

①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다)는 수미상관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07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2025 실시 10월 학평 44(고1)

①, ②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과 ②는 모두 화자가 대상이 지닌 문제점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 ② ①과 ②는 모두 화자가 대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 ③ ①은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②는 멀어지는 시간이다.
- ④ ①은 화자가 대상의 변화를 지각하는, ②는 화자가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이다.
- ⑤ ①은 화자가 대상으로 인해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 ②는 화자가 대상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 시간이다.

08 제시문을 바탕으로 감상하기 2025 실시 10월 학평 45(고1)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이겠군.
- ② (다)에서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미루나무’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무의 성장에 투영된 것이겠군.
- ③ (다)에서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는 나무의 하강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내적 사유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는 촉각과 청각으로, (다)에서 ‘싸대기를 후리’는 ‘바람의 싸늘한 손’은 시각과 촉각으로 이미지화된 자연 현상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구체화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나’가 ‘벌레소리’가 ‘다 흐르고 말면’ ‘비로소 잠이 들겠다’라고, (다)에서 ‘이파리들이’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 ‘강물에 쏟아지나니’라고 한 것은 정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 것이겠군.

* 어휘 풀이

(가)

- 투영: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유: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나)

- 천지: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다)

- 정정하다: 바르고 가지런하다.

Ⅲ 문학 실전 모의고사

*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국어의 문학 영역은 총 4개 지문 1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1. 현대시 (+ 제시문) 1지문
2. 고전 시가 + 수필 복합 1지문
3. 현대 소설 1지문
4. 고전 소설 1지문

[문학 실전 모의고사 문항 구성표]

번호	갈래	주요 평가 요소
[01~03]	고전 소설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 탐구하기
[04~07]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복합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비평하기
[08~11]	현대 소설	작품 속 공동체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파악하여 감상하기
[12~15]	현대시+제시문	새로운 관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Day 17 문학 실전 모의고사 [1회]

하진양문록 (작자 미상)
탐라별곡 (정언유), 안화설 (채제공)
213호 주택 (김광식)
시에서의 전형적 인물,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못 위의 잠 (나희덕)

Day 18 문학 실전 모의고사 [2회]

백봉선전 (작자 미상)
만흥 (윤선도), 전간대 (홍석주)
론도 (성석제)
수라 (백석), 까치밥 (송수권),
시적 공간의 의미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표연히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소저가 황홀하고 괴이하여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예를 갖추니, 그 부인이 혼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져 슬퍼하여 왈,

[A] “옥윤아, 네 이제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라. 너희 남매가 강보에 싸여 있을 적에 세상을 버리매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내 어둔 하늘에서 슬퍼함을 마지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너의 남매 보전하지 못하게 되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란(累卵) 같아 집을 붙들고 네 손에 있거늘, 네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 우리 문중의 참화는 운명이니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진원대선(眞元大仙)께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바빠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지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모두 너의 운명이요 하늘이 정한 운수니 차마 어찌하리오?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생각하라. 몸을 마쳐 후사를 없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 진원자는 본래 네 스승이니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모르시기 나아가고 일시도 머물지 말라.”

소저가 슬피 울며 대답하기를,

[B]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며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 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모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소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부인이 응낙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내어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매 문득 오색구름이 흩어져 다시 보지 못하니, 흐릿한 중에 놀라 깨달으매 한순간 꿈이라.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이에 좌우를 살피니, 희미해진 촛불이 미미한데 주 씨는 깊이 잠들었고, 시종들이 연달아 밤을 새웠는지라 다 곤하여 자거늘, 소저가 생각하되,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여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할지라. 내 이제 달리 죽으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죄 되니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형체 온전히 함이 상책이라.’ 하고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으매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하고 드디어 혼서와 옥가락지를 내어 몸에 품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 몸을 수중에 던지니 홀연 공중에서 황룡이 내려와 소저를 태워 공중으로 오르니, 정신이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내려놓으매 눈을 들어 보니, 서역 땅 ‘곤륜산 제삼봉 진원 법선관’이라 하였더라.

한 도사가 이르되,

“네 일찍 시서를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을 이르나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 ‘화선’이라.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제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한전(廣寒殿)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새, 문곡성(文曲星)과 일찍이 바둑 두어 그 재주를 보실새, 문곡성이 매화선(梅花仙)과 사귀어 깊고 두텁더니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희롱하여 왈,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에 한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 보면 즐거우리로다.’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이 가하리라.’ ‘그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우니 내 아내를 삼고자 하노라.’ 옥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노하사 인간으로 귀양 보내시니 서로 남녀를 다투는 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하가의 여자가 되니,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나 재주와 성품이 출중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하므로 문곡은 입신양명하여 왕후장상의 부귀를 누리게 하시고, 너는 비록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 공명을 이뤄 천하에 횡행하여 지기를 펴게 하시니, 네 모친 윤 씨 천궁에 즐거우시나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하여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니라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고로 금일 구하여 돌아왔나니, 네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빠 돌아가고자 하느냐?”

소저가 환히 깨달아 삼가 감사하며 말하기를,

“저는 미숙한 속세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잃은 슬픔을 품어 슬픔을 참고 부친의 자애하심을 의지하여 지내오더니 천만뜻밖에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변고**를 당하여 차마 인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 일신을 수중에 던져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더니, 이제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 주시고 거두심을 얻사오니, 어찌 다시 흥진에 나감을

생각하오며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고자 하리이까마는 가문이 불행하여 형제가 인의를 몰라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 화를 만나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老父)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근심하옵나니, 엿드려 바라건대 노선(老仙)은 대자대비하사 노부의 목숨을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사가 왈,

“네 사정이 그리한즉 네 무예를 배웠다가 나라에 변이 있거든 공과 업적을 세워 명성을 드높이고 이름을 천하에 알리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노부를 영화 부귀로 섬기게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무예와 도술을 익힌 하옥윤은 세속으로 돌아와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한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옥윤은 원수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한다.

익일에 양 진영이 전쟁할새 천진(天陳)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일월기와 황금 도끼가 좌우로 돌렸고 붉은 일산(日傘)이 부치는 곳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들이 한 수레를 밀어 나오니, 이는 하원수라.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허리에 사마대를 두르고 손에 백우선을 들었으니 백설 같은 피부와 달빛같이 상서로운 기운이 백일(白日)에 밝게 빛나니, 모든 장수들이 태을선군이 하강하였다 하더라.

호용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에 인재 없음을 알 수 있도다. 저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아 보내어 감히 나를 항거하리오?”

하고 웃기를 마지않더라.

하원수가 크게 노하여 친히 창을 빼어 들고 말을 달려 바로 호용을 취하여 서로 무기를 부딪치고 몇 번 지나지 않아 원수의 칼이 빛나며 호용의 머리가 말 아래에 내려지니,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기를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니 모든 백성이 춤추며 기뻐 승복하더라.

- 작자 미상, <하진양문록>

01 2025 실시 10월 학평 31(고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윤은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 ② 옥윤은 자신이 지닌 혼서와 옥가락지를 후문에 던졌다.
- ③ 옥제가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했다.
- ④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 옥윤을 꾸짖었다.
- ⑤ 호용은 하원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

02 2025 실시 10월 학평 32(고1)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모친은 옥윤을 구하고자 하는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
- ② [B]에서 옥윤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③ [A]에서 모친은 옥윤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성을, [B]에서 옥윤은 모친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④ [A]에서 모친은 옥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하는 이유를, [B]에서 옥윤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 모친은 사물에 빗대어 가문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B]에서 옥윤은 상황을 가정하여 가문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03 2025 실시 10월 학평 33(고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하진양문록>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은 선계의 개입으로 극적 효과를 얻는다. 선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물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한다.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전할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옥윤에게 진원자를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 주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도사가 옥윤에게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고 하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의 정보를 알 수 있군.
- ③ 옥윤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번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고 하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도사를 만난 옥윤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고 하는 데서, 인물이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하원수가 ‘무기를 부딪치고 몇 번 지나지 않아’서 ‘호용의 머리’를 베고 백성을 위로하는 데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웅적 면모를 드러냄을 알 수 있군.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표시하세요.

ㄱ

- ㄱ **가계**[家 집 가系 이음 계]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집안의 계통
예 그의 **가계**는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의 집안이다.
- ㄱ **가렴**[苛 잔폴 가斂 거들 령]
세금 따위를 가혹하게 거두어들임.
예 군수가 어떤 방식으로 **가렴**을 했는가?
- ㄱ **가정**[苛 잔폴 가政 정사 정]
가혹한 정치
예 독재자의 **가정** 아래 놓인 백성들
- ㄱ **간결체**[簡 대쪽 간潔 깨끗할 결體 몸 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내용을 명쾌하게 표현하는 문체
예 이 작품은 **간결체**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 ㄱ **간여**[干 간섭할 간與 더불어 여]하다
어떤 일에 간섭하여 참여하다.
예 할아버지는 아직도 회사 일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 ㄱ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이미지
- ㄱ **감정 이입**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 피꼬리에 **감정 이입**을 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ㄱ **강호**[江 강 강湖 호수 호]
① 강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예전에, 은자나 시인, 목객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예 그는 **강호**에 문혀 산 인물로 평가된다.
- ㄱ **개의**[介 끼임 개意 뜻 의]하다
어떤 일 따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다.
예 남의 말에 **개의치** 마라.
- ㄱ **개탄**[概 분개할 개歎 탄식할 탄]스럽다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만한 데가 있다.
예 할아버지는 **개탄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 ㄱ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
예 이 시에는 귀뚜라미가 **객관적 상관물**로 등장한다.
- ㄱ **거드름**
거만스러운 태도.
예 그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 ㄱ **결의**[決 결정할 결意 뜻 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예 그의 굳은 **결의**를 본받고자 한다.

- ㄱ **겸허**[謙 겸손할 겸虛 빌 허]하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다.
예 그의 **겸허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 ㄱ **경박**[輕 가벼울 경薄 얇을 박]하다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예 요란한 치장이 다소 **경박해** 보인다.
- ㄱ **경부**[警 경계할 경部 나눌 부]
대한 제국 때에, 경시의 아래, 경부보의 위에 있던 판임 경찰관
예 카네야마 **경부**의 아들 김학모
- ㄱ **고고**[高 높을 고古 옛 고]하다
세속을 초월하여 고상하고 고풍스럽다.
예 홀로 서 있는 학의 모습이 **고고해** 보였다.
- ㄱ **고사 인용**
옛날에 있었던 일을 끌어 쓰는 것
예 **고사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ㄱ **고사**[姑 시어미 고捨 버릴 사]하다
어떤 일이나 그에 대한 능력, 경험, 지분 따위를 배제하다.
예 비행기는 **고사하고** 배도 타본 적이 없다.
- ㄱ **고살길**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예 어느새 **고살길**로 접어들었다.
- ㄱ **고증**[考 상고할 고證 증거 증]
어떤 자료나 사실에 기초하여 밝힘. 주로 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따위를 옛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을 이른다.
예 문헌 자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
- ㄱ **곡절**[曲 굽을 곡折 꺾을 절]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예 많은 **곡절**을 겪다.
- ㄱ **공감각적 이미지**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한 이미지
- ㄱ **공명**[功 공 공名 이름 명]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예 많은 부귀와 **공명**을 누리다.
- ㄱ **공비**[共 함께 공匪 대상자 비]
공산당의 유격대
예 **공비** 소탕에 나섰다.
- ㄱ **공일**[空 빌 공日 날 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예 이번 **공일**에는 바다에 놀러 갈 것이다.
- ㄱ **과중**[過 지남 과重 무거울 중]하다
부담이 지나쳐 힘에 벅차다.
예 **과중한** 세금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했다.

- ㄱ **관철**[貫 뚫 관徹 통할 철]되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목적이 기어이 이루어지다.
예 우리들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되었다.
- ㄱ **괄시**[愬 근심 없을 괄視 볼 시]하다
업신여겨 하찮게 대하다.
예 사람을 이렇게 **괄시**해도 되는 겁니까?
- ㄱ **팬이**
'고양이'의 준말
예 마당에 **팬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 ㄱ **국태민안**[國 나라 국泰 클 태民 백성 민安 편안할 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
예 **국태민안**하여 과거를 보인다고 하더라.
- ㄱ **군자**[君 임금 군子 아들 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있는 사람
예 **군자**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 ㄱ **궁박**[窮 다할 궁迫 닥칠 박]하다
몹시 가난하여 구차하다.
예 집도 없는 **궁박한** 처지이다.
- ㄱ **궁색**[窮 다할 궁塞 막힐 색]하다
아주 가난하다.
예 **궁색한** 살림을 꾸려 나간다.
- ㄱ **권면**[勸 권할 권勉 힘쓸 면]하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예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면**하다.
- ㄱ **권세**[權 권세 권勢 기세 세]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예 높은 **권세**를 누리다.
- ㄱ **규수**[閩 도장방 규秀 빼어날 수]
남의 집 처녀를 정중하게 이르는 말
예 그녀는 양갓집 **규수**이다.
- ㄱ **규중**[閩 도장방 규中 가운데 중]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예 깊은 **규중**에 들어 있어 바깥소식을 몰랐다.
- ㄱ **금의옥식**[錦 비단옷 금衣 옷 의玉 구슬 옥食 먹을 식]
비단옷과 흰쌀밥이라는 뜻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르는 말
예 그 사람은 **금의옥식**을 누리며 자랐다.
- ㄱ **금지옥엽**[金 쇠 금枝 가지 지玉 구슬 옥葉 나뭇잎 엽]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
예 아이를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키웠다.
- ㄱ **금**[禁 금할 금]하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다.
예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다.